

“ 인생의 무거운 짐 ”

■ 이종윤 원로목사

스페인의 격언 중에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집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나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다.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심판대 앞에서 도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숨을 수도 없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청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장에 “결단하자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약함을 자인하고 피조물 됨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서로 져야할 짐이 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한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로가 아니라 어머니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 마디 논쟁보다 낫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크리소스톰 목사를 황금입술을 가진 이라 불렀다. 크리소스톰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은 태양빛이 비쳐지지 않을지언정 크리소스톰 목사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한 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믿어주고 격려하셨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져주신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흥해 앞에서 옮겨 주셨다. 사방으로부터 옥여쌘을 당한 사도 바울의 짐도 하나님은 제거시키시는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주셨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의 짐, 질병, 절망, 불신앙의 짐, 공포, 후회의 짐을 전능자, 전지자,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

-한국장로신문 [제 1389호] 2013년 11월 16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4:35-41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Calms the Storm”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림, 김석순(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말씀의 결실 ”

■ 막 4:14~20

한 농부가 밭에 나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환경과 조건이 다른 곳에 떨어짐으로써, 씨앗이 싹 트이고 성장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외방민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농부의 씨는 길가밭, 돌 째밭, 가시떨기, 옥토에 뿌려집니다.

길 가에 뿌려졌다 함은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여, 말씀을 들었다가 곧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길 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들었지만 곧 잊어버린 것입니다. 돌 째밭은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 옥토는 어떤 밭입니까? 성경은 옥토를 땅에 씨가 뿌려지고 이것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길가밭이나 돌 째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밭들의 차이는 말씀의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밭의 겉모습과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의 결실의 유무가 좋은 밭과 나쁜 밭은 구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을 돌밭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밭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만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타인보다 낮은 자리에 처할 때는 거침없이 말씀을 저버리는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열매 없다, 또는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 때문이지만, 가시떨기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여기는 것들과 상충될 때에는 말씀을 양보하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온 좋게 시냇가 옆에 위치하므로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므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도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 내고 인내하므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환난을 인내하므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막 4:20).

한때 서울교회에서는 100배라는 숫자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은 꼭 편안함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 그리고 때로는 단 2배의 결실을 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성도나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맺는 말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에 허락하신 이 시련의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시련이 종식되었다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락되어진 과정과 순간에 우리들 각자가 말씀의 결실을 맺었느냐? 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허락하신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말씀의 귀한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김의창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목 도	다 합 께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성 시 시 147:1-3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찬 송 379(429)	다 합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기 도	이강인 집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9:1-2...	인 도 자		성 경 민 32:1-1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홍해작전 승전보고	말 은 이
* 찬 송 Hymn2(6).....	다 합 께		찬 양	찬 양 대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설 교 ... "요단강 동쪽에서" ...	설 교 자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6(감사절2)...	다 합 께		* 찬 송 347(38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주기도송	다 합 께
찬 송 Hymn21(21)...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시139:1-14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맥추감사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이종윤 목사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기 도	유기순 권사
설 교 Sermon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종윤 목사		성 경 막 1:29-34	인 도 자
(Thanks To God for His Omiscience, Omnipotence and Omnipresence)			찬 양	찬 양 대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설 교 ... "베드로의 집에 가시다" ...	설 교 자
* 찬 송 Hymn588(307)...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수 요 예 배

새벽기도회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 4:20)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해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 교구 간사모임 / 1일(주) 오후 3시20분 104호
- 스데반회 7월 월례회 및 특강 / 7일(토) 오후 3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제목 / "의약품 올바르게 사용하기" (강사 : 최복희)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계현(안과),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맥추감사절 /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 장 례
1. 故 서춘식 집사 (9교구 김진숙 권사의 부군) / 6월23일(토) 별세, 25일(월) 천국환송예배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1명	265명	225명	1,351명	15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24일	헌 금	34,029,100	
"	급 여		36,554,000
	말씀봉사비		18,010,000
	찬양대사례,운영비		12,430,000
"	교회학교교육비		9,770,000
	예 수 금	506,13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31,200
	교통통신비		352,450
	차량유지비		366,500
	사무용품비		13,500
	환경유지비		256,000
	수선유지비		970,500
	식당운영비		598,460
	합 계	34,029,100	80,208,740